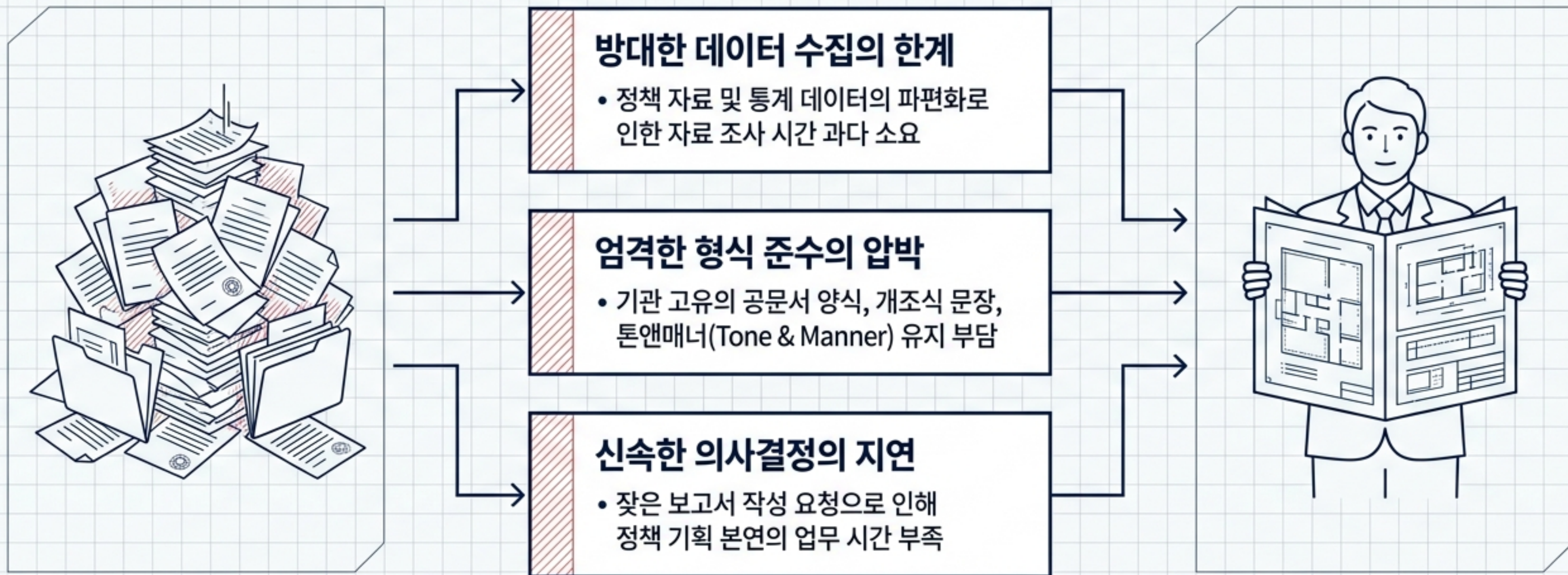


AI 기반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 실무 가이드

단순 질의를 넘어선 100% 실무 밀착형
보고서 형식 복제 및 작성 워크플로우

정책 기획부터 동향 파악까지, 지자체 실무자의 가장 큰 업무 부담은 '보고서 작성'에 있음.



단순한 AI 질의응답(Prompting)만으로는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공문서 산출이 불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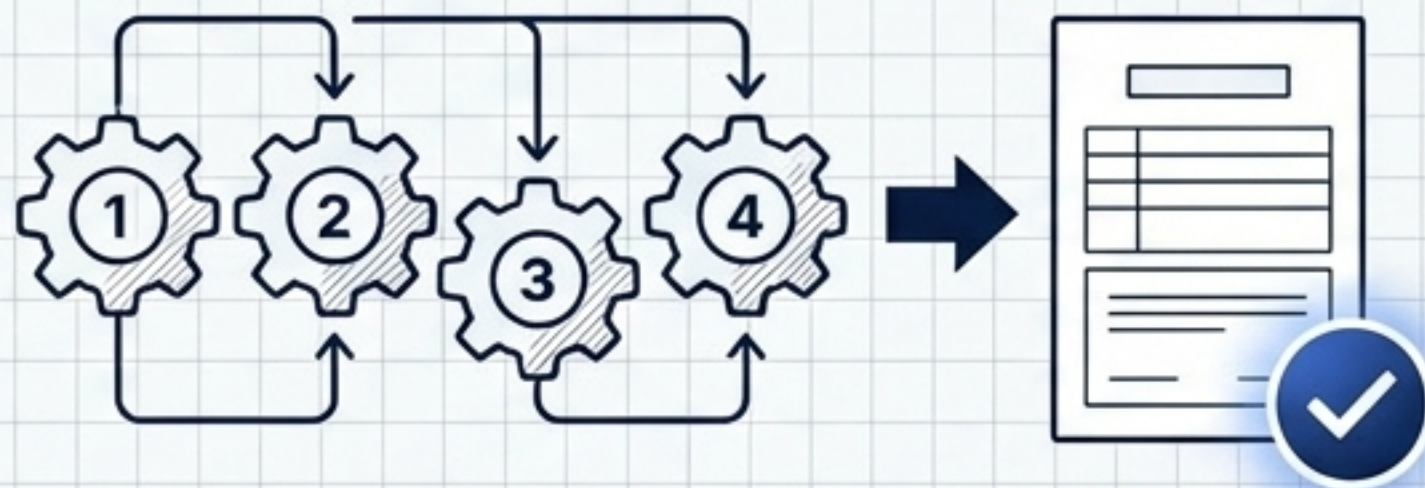
기존 방식: 단순 질문 (1-Step)



현재 AI 활용의 한계점

- **형식 불일치:** 기관 양식 미반영 및 줄글 위주 결과물
- **신뢰성 결여:** 근거 없는 서술 및 환각(Hallucination)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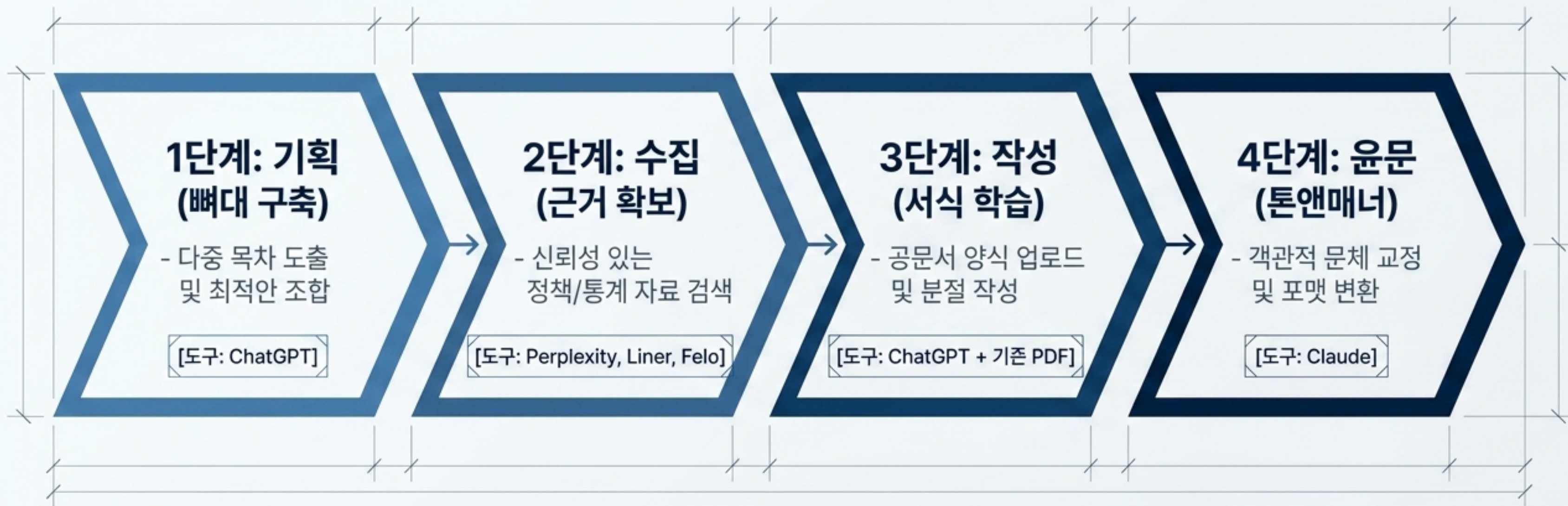
개선 방식: 워크플로우 (4-Step)



해결 방향: 전문 AI 결합

- **도구 결합:** 기획/수집/작성/윤문 단계별 최적화 도구 적용
- **프로세스 통제:** 단일 프롬프트가 아닌 체계적 워크플로우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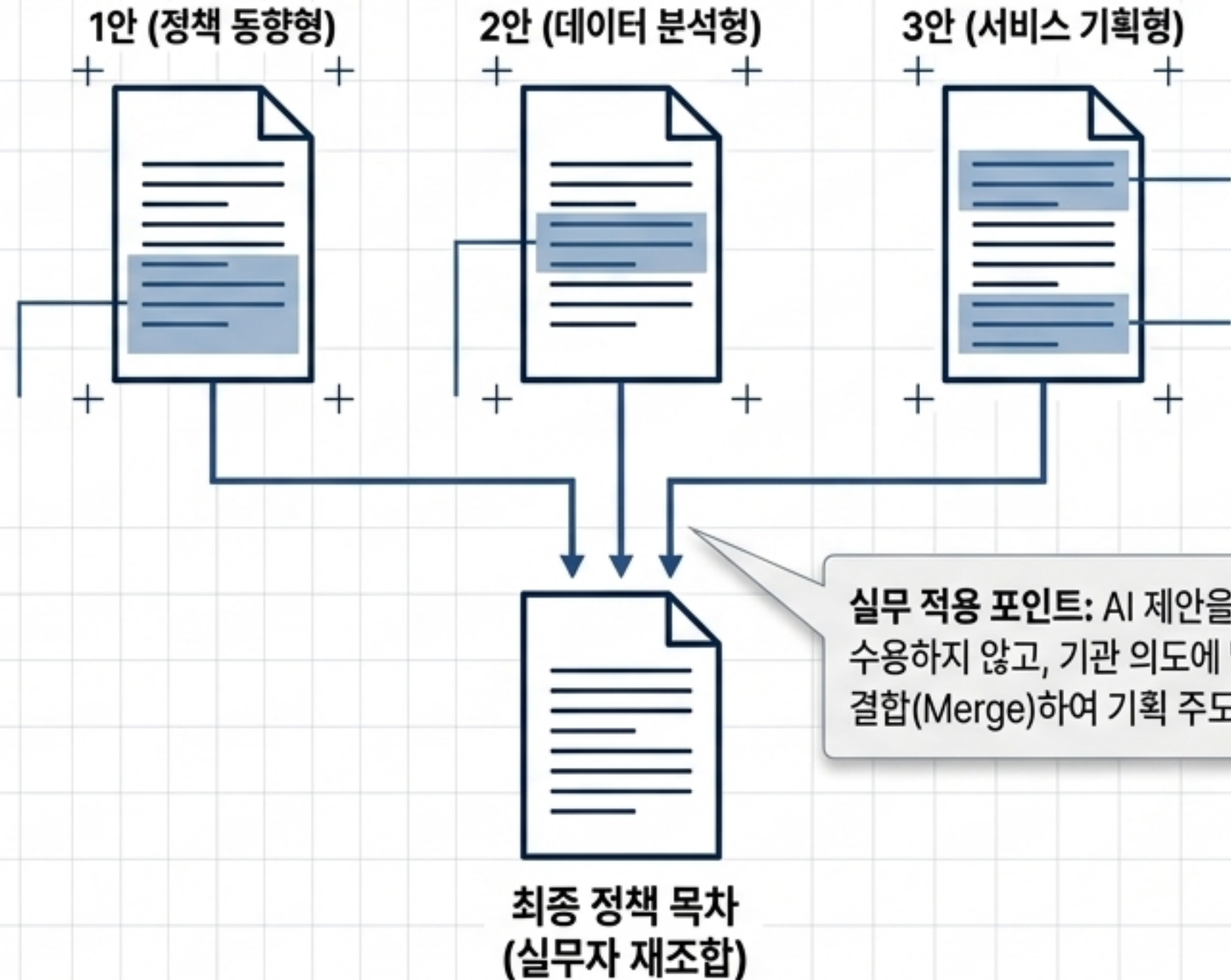
최적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, 수집, 작성, 윤문의 4단계 AI 협업 프로세스를 적용함.



단일 목차가 아닌 3~5개의 다중 목차 버전을 생성하여, 정책 목적에 맞는 최적의 안을 조합함.

프롬프트(지시어) 작성 전략

- 주제 제시: 2026년 인구소멸 대응 정책 동향 보고서 작성
- 다중 생성: 3가지 다른 관점(버전)으로 작성 요망
- 구체화: 각 5~6개 대주제/소주제, 예상 페이지 수 포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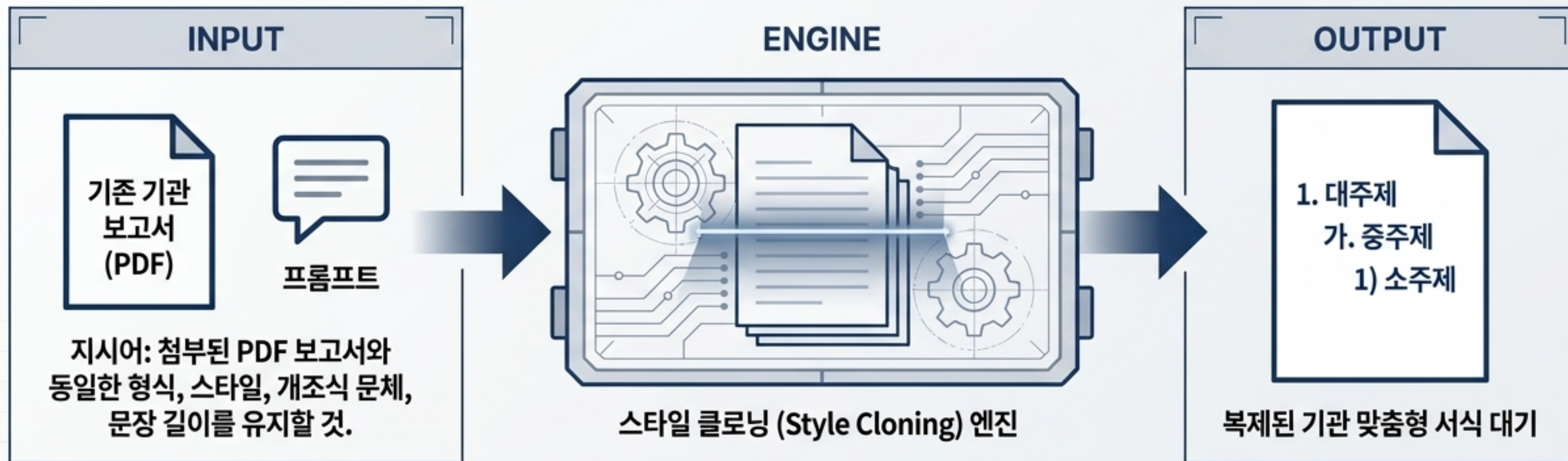
근거 없는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검색 특화 AI를 활용, 출처가 명확한 실데이터(PDF)를 확보함.

공통 프롬프트: 2026 인구소멸 대응 글로벌 정책 시장 조사 요망

Perplexity	Liner	Felo
특징: 최신 정책 자료 검색 및 명확한 참고문헌(주석) 제공  [다운로드 PDF] 클릭	특징: 정보의 시각화 및 주요 보고서 형태의 1차 요약 지원  [내보내기 PDF (APA)]	특징: 다국어 레퍼런스 교차검증 및 체계적 출처 정리  [내보내기 PDF] 클릭

실무 적용 포인트: 3개의 틀에서 각각 산출된 3건의 PDF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
보고서의 100% 객관적 근거(Reference)로 활용.

기존 보고서(PDF)를 AI에 업로드하여, 기관 특유의 문서 양식과 개조식 문체를 - 완벽하게 학습시킴.



실무 적용 포인트:
AI 특유의 장황한 서술형 문장(줄글) 생성을 원천 차단.
별도의 2차 서식 편집 없이 즉시 결재 가능한 기본 틀 확립.

보고서 전체를 한 번에 작성하지 않고,
목차(챕터)별로 수집된 데이터를 투입하여 분할 작성함.

보고서 전체 일괄 작성

문제점: 세부 내용 축약 및
핵심 데이터 누락 발생

챕터 1

챕터 2

챕터 3

데이터 주입 프롬프트: 첨부된 3건의 최신 조사 자료를 빠짐없이 반영하여,
앞서 학습한 공문서 양식에 맞춰 '챕터 2' 내용만 먼저 작성할 것.

마이크로 매니지먼트: 챕터 1 작성 →
검토 → 챕터 2 작성 순으로 통제력 유지.

완성된 초안을 윤문 특화 AI(Claude)에 투입하여,
객관적 표현으로 다듬고 최종 파일로 변환함.

INPUT



투박한 1차 초안
(Markdown)

[Claude 윤문 엔진]



지시어: 수치/사실 관계는 100% 유지하되,
어색한 표현을 다듬고 종결어미를 다양화하여
정중/객관적인 공문서 톤으로 윤문.

OUTPUT



정제된 최종안
(DOCX)

포맷 변환 요청: 마크다운 텍스트를
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DOCX(워드)
파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.

AI 워크플로우 도입을 통해 보고서 작성 시간을 단축하고, 정책 기획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함.

시간 및 리소스 절감

단순 자료 수집 및
반복적인 문서 양식
편집에 소요되는
행정력 최소화.

문서 품질 상향 표준화

3중 교차 검증된
데이터(Perplexity,
Liner, Felo) 기반
작성으로
정책 정보의 신뢰도
및 객관성 확보.

지자체 행정 역량 강화

실무자는 단순
'문서 작성'이 아닌,
지역 사회를 위한
'정책 기획 및
방향성 설정'이라는
핵심 가치에 집중.